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31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22)	봉헌 (221)	성체 (170)	파견 (478)
---------	---------	----------	----------	----------

미사 전례 예절

- 흔히 미사를 “보러간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심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와 혀와 입과 감정과 마음을 합하여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미사참례”라고 해야 합니다.
- 성당에 항상 늦게 와서 뒤에 앉아 있다가 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고 손님 같은 신자입니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주일만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여유를 가집시다.
- 미사참례 복장은 단정한 옷차림, 되도록 정장을 하도록 합니다. 소매 없는 옷이나 지나치게 짧은 미니스커트, 속이 많이 드러나는 옷, 츄리닝, 기타 운동복, 슬리퍼 착용은 합당한 전례 복장이 아닙니다.
- 성당마당에 들어서 성모님께 인사를 합니다. 이때 성모님께 성호를 그어 인사함은 바람직한 행동이나 곳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8/5	이 요한	이바오로/김유스티나	박다니엘/황스테파노
8/12	이 그레이스	이요한/김헬레나	박다니엘/황스테파노
8/19	이 마틸다	이바오로/김유스티나	박다니엘/황스테파노
8/26	이 그레이스	이요한/김헬레나	박다니엘/황스테파노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00	\$325	\$55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공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8/4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9/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8/11	김 마론/ 김 헬레나	9/15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8/18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9/22	이 요한/ 이 마틸다
8/25	황 가롤로/	9/29	유 요한/ 유 마리아
9/1	손 아놀드/ 손 쟈마	10/6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8 월 2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오후 7 시

이번 임원회의는 본당 사정상 오늘 오후 7 시에 있겠습니다. 임원들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목요일 오후 8 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친교실 에서 모임

로마서로 공부를 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성경공부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

8 월 19 일 미사 후 친교실 에서 소 공동체 모임이 있겠습니다.

남가주 성령 쇄신 대회 참가 신청 8 월 25,26 일

이번 대회의 참가 비용 절반(50%)을 성당에서 지원합니다.

호텔 예약 등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신청: 구역장님, 재무부장님**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안내 8 월 15 일 저녁 6 시 미사

오는 8 월 15 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의무축일)로 우리 성당에서는 저녁 6 시 미사가 있습니다.

전 요아킴 신부님의 생신 축하 만찬 8 월 19 일(일) 저녁 6 시

신부님 생신 축하 저녁만찬이 히스패닉 공동체 주관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주님의 큰 그림

-김원경 마리아 | 사이클 선수-

저는 올해 29살입니다. 세어보니 벌써 20년 동안 운동 선수라고 저를 소개해 왔네요. 감사하게도 10년째 국가대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에 있는 아시안게임은 세 번째 출전이지만, 올림픽에는 단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대표임에도 선택 받지 못하고, 부상으로 다음 올림픽을 고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질 듯 하늘을 보며 원망했습니다. 출전이 좌절되자 하늘에게 묻고, 또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유아세례만 받았을 뿐, 여러모로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던 부모님을 따라 냉담을 한 지 20년이 훌쩍 지났을 때입니다. 올림픽에 못 나가게 되면서 그 이름 모를 이끌림에 근처 성당의 미사 시간을 알아보고 무작정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이유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궁금해 20년간의 냉담을 끊어내고, 자의적으로 교리 공부를 하며 첫영성체도 하고, 매주 성당을 다닌 지도 7년째가 되어 갑니다. 이제야 올림픽 출전이 두번이나 무산된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라는 붓을 잡고 작은 실패를 통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사이클 역사상 최초의 메달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에게 두 번의 올림픽이 좌절되지 않았었다면 아마도 올림픽 메달이라는 큰 꿈을 꾸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올림픽 출전을 하기만 해도 내 목표가 이뤄졌을 것이니까요.

저는 제 기준의 실패에서 하느님의 큰 그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기준의 실패이지 하느님의 시선에서는 도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 원해요. 지금 주세요. 왜 자꾸 뺏어가나요?’라고 울부짖었지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주님의 계획에 따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되 결과엔 연연하지 않는 평온함이 생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달라고 때를 썼을 때 받았더라면 아마도 많이 교만해졌을 제 모습도 괜히 상상하게 됩니다.

“주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이 말을 경험으로, 제 자신에게 한 번 더 각인하고 싶습니다.

-서울주보 에서-

교리상식 미사 끝부분의 ‘마침 영광송’은 사제만 바치는 것 아닌가요?

‘마침 영광송’은 집전 사제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도움으로 성삼위께, 구원 업적에 대해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기쁨의 순간이며, 성변화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미사경본총지침」 236항에 따르면, ‘마침 영광송’은 주례 사제만 바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주례 사제가 원하면 공동 집전 사제들이 함께 바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주례 사제가 신자들에게 ‘마침 영광송’을 함께 바치자고 초대하면, 전례 지침과는 어긋나지만 회중은 응하면 됩니다. 집전자의 초대를 하지 않으면 ‘마침 영광송’이 끝난 다음 큰 소리로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글_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